

2021-08

## 금융시장 브리프

2021. 08. 04.

### ● 글로벌(한국 포함) 경기회복·물가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통화정책 정상화 기대 선반영으로 8~9월 국내외 국채금리가 소폭 상승에 그치고 주요국 통화와 주가는 완만한 강세를 나타낼 전망

- 한국은행은 경기 개선, 주택시장과 연계된 금융불균형 우려를 고려하여 8.26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bp(0.50% → 0.75%) 인상(다만, 8월 중 코로나 재확산세가 악화되어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경우 인상 시기가 10월 또는 11월로 늦춰질 가능성도 상존)
- 미 연준은 9.21~22일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0.25% 상한)
- 국고채 금리는 경기 회복과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선반영되어 완만한 오름세(국고 3년물 7월말 1.42% → 8월말 1.48% → 9월말 1.50%)
- 선진국 국채금리는 경제활동 정상화 기대,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발행물량 증가, 연준 테이퍼링 논의 구체화로 상승(미 국채 10년물 7월말 1.22% → 8월말 1.26% → 9월말 1.30%)
- 원화는 기준금리 인상 기대, 수출 호조와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로 강세압력이 다소 우세(원/달러 7월말 1,150 → 8월말 1,145 → 9월말 1,140)
- 위안·유로화는 경제 정상화 기대, 외국인 채권·주식 투자자금 유입으로 완만한 강세를 보이고, 엔화는 미·일 금리차 확대 소폭 약세
- 한·미 주가지수는 기업실적 개선, 확장적 재정정책 지속,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배경으로 오름세 지속(KOSPI 7월말 3,202 → 8월말 3,255 → 9월말 3,280)
- 은행업 주가지수는 NIM 개선과 견조한 대출 증가세, 양호한 자산건전성 유지, 배당 관련 규제 완화로 소폭 상승(7월말 1,891 → 8월말 1,910 → 9월말 1,930)
- 그린스탁지수(WGSI)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시장 진입 가속화, 풍력 기업들의 해외 투자 확대 소폭 오름세(7월말 1,952 → 8월말 1,975 → 9월말 1,990)

작성자: 경제·글로벌연구실 허문종 팀장(02-2173-0568)

ESG·기업금융연구실 성지영 수석연구원(02-2173-0561)

경제·글로벌연구실 박수빈 조사원(02-2173-0556)

경제·글로벌연구실 박시연 인턴(02-2173-0563)

책임자: 경제·글로벌연구실 권영선 실장(02-2173-0569)

## I. 8~9월 금융시장지표 전망

### 1. 금리

#### 가. 국내금리

##### ■ 한국은행은 8.26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bp(0.50% → 0.75%) 인상할 전망

-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수출·투자 호조, 백신 보급과 대규모 초과저축에 기반한 소비 반등, 추경 등 확장적 재정 기조, 주택시장과 연계된 금융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25bp(0.50% → 0.75%) 인상될 것으로 예상
  - \* 7.15일 금통위에서 고승범 위원이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제기한 가운데, 이주열 총재는 경기와 물가, 금융불균형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통화정책 완화의 조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발언
  - \* 7.28일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
  -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비, %): 4월 2.3 → 5월 2.6 → 6월 2.4 → 7월 2.6
  - \* 주택매매가격(전년동월비, %): 4월 12.1 → 5월 13.0 → 6월 13.9 → 7월 14.3
- 다만, 8월 중 코로나 재확산세가 악화되어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경우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10월 또는 11월로 늦춰질 가능성도 상존
  - \* 코로나 신규 확진자수(명): 7.12일 1,100 → 7.28일 1,895(최고) → 8.3일 1,202

##### ■ 국고채 3년물 금리 상승 전망: 7월말 1.42% → 8월말 1.48% → 9월말 1.50%

- 국내외 경기 회복과 기준금리 인상 기대로 상승 압력이 우세하나, 기준금리와의 스프레드 확대 부담, 금리 인상 사이클 선반영으로 국채금리의 추가 상승폭이 제한
  - 국고채 금리(3년물)와 기준금리와의 격차(90bp 내외)에는 향후 3년 이내 총 2~3차례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8월에 기준금리가 25bp 인상되더라도 국채금리의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
    - \* 7.27일 IMF는 한국의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4월 전망) 3.6%에서 4.3%로 상향 조정
    - \* 국고채 3년물-기준금리 스프레드(bp): 2011.3.9일 108 → 2019.8.19일 -41(저점)

→ 2021.7.15일 100(10년4개월래 최대) → 7.30일 92

■ 국고채 10년물 금리 소폭 상승 전망: 7월말 1.87% → 8월말 1.90% → 9월말 1.92%

- 지표물가 상승, 백신 보급 확대에 따른 경기 회복세로 국고채 10년물 금리에는 상승압력이 존재하나,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2022년 이후 글로벌 경기 모멘텀 약화 가능성, 국내외 채권 금리차 확대, 보험사 등의 장기물 투자수요로 장기금리 상승폭이 크게 제한
  - \* 국고채 10년물-미국채 10년물 금리 스프레드(bp): 2021.1.4일 81 → 3.29일 26(단기 저점) → 7.19일 78(6개월래 최대) → 7.30일 65
  - \* 국고채 10년물-3년물 금리 스프레드(bp): 2011.1.13일 107 → 2019.8.28일 6(단기 저점) → 2021.5.14일 104(10년4개월래 최대) → 7.30일 46

국내금리 전망

항목	단위	2020	2021(F)	2021.6월	7월	8월(F)	9월(F)
기준금리	기말, %	0.50	0.75	0.50	0.50	0.75	0.75
국고채 3년	기말, %	0.98	1.55	1.45	1.42	1.48	1.50
국고채 10년	기말, %	1.71	2.05	2.09	1.87	1.90	1.92

주: 2021년말 전망치는 '우리금융그룹 거시경제·금융시장지표 전망'(2021.7.23일) 기준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7월 국고채 금리 전망에 대한 평가(B등급<sup>1)</sup>)

- 7월말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42%로 전망치(1.47%)를 하회
-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의 급증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고채 금리가 예상과 달리 반락

나. 해외금리

■ 미 연준은 9.21~22일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0.25% 상한)할 전망

- 연준은 평균물가목표제(Average Inflation Targeting) 도입을 통해 고용과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완전 고용, 물가상승률 2%)으로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제로금리 정책을 장기간 유지할 방침임을 시사

1) 대표 금리지표(국고채 3년)의 실제치와 전망치 간 격차가 ±1bp 이하는 S등급, ±3bp 이하는 A등급, ±5bp 이하는 B등급, ±5bp 초과는 C등급으로 평가

- 금융시장은 9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계획이 발표될지 여부에 주목
  - \* 연준은 경제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7월(27~28일) FOMC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

■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소폭 상승 전망: 7월말 1.22% → 8월말 1.26% → 9월말 1.30%

- 연준의 테이퍼링 논의 구체화, 백신 접종에 의한 경제 정상화,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 미 국채금리에는 상승압력이 상존하나,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부채한도협상 논의 부재로 상승폭이 크게 제한
  - \* 6월 CPI 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5.4%로 13년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으나, 중고차(+10.5%), 호텔(+7.9%), 비행기표(+2.7%) 등 일시적 요인에 주로 기인
  - \* 파월 의장은 7월 FOMC에서 연준의 MBS 매입이 주택가격 급등의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채와 MBS 매입 규모를 동시에 줄여나갈 계획임을 시사
  - \* 미 의회가 기한(7.31일) 내 부채한도 상향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기존 법정한도(22조달러) 내에서만 신규 국채 발행이 가능(장기금리 하향요인). 미 의회의 8월 휴회로 9월에 협상이 재개될 예정이며 옐런 재무장관은 10월 디폴트 발생 가능성을 우려

■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소폭 상승 전망: 7월말 -0.46% → 8월말 -0.41% → 9월말 -0.36%

- 유럽중앙은행(ECB)의 국채매입(PEPP) 지속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서비스업 반등, EU 경제회복기금 집행, 총선(9.26일) 전후 재정지출 확대 기대를 선반영하여 독일 국채금리는 완만하게 상승(마이너스 금리폭 축소)
  - \* 7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8% 상승(통계집계(1996년) 이래 최고치)
  - \* 서비스업PMI(기준선=50): 5월 52.8 → 6월 57.5 → 7월 62.2
  - \* 7.8일 ECB는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기존 2% 바로아래(close to, but below 2%)에서 2%로 18년만에 상향 조정하고, 필요시 일시적인 오버슈팅을 용인하겠다고 발표. 7.22일 통화정책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자산매입 규모·속도를 유지했으며, 인플레이션이 새로운 목표치(2%)에 지속적으로 도달할 때까지 완화적인 통화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수정 포워드가이드를 제시
  - \* EU는 경제회복기금(8,000억유로) 조성을 위해 연내 약 800억유로 규모의 장기채권을 발행할 계획(6.15일 200억유로, 6.29일 150억유로의 자금을 조달)

■ 영국 국채 10년물 금리 소폭 상승 전망: : 7월말 0.57% → 8월말 0.60% → 9월말 0.63%

- 봉쇄조치 해제에 따른 경제 정상화 기대, 글로벌 금리 오름세와의 동조화로 영국 국채금리는 높아지겠지만, 코로나 확산세 진정에 대한 불확실성, 영란은행(BOE)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상승폭을 제한
  - \* 7.19일 봉쇄조치를 전면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백신 접종률(1차 기준 68.7%)로 코로나 확진자수는 감소(7.21일 4.7만명 → 7.29일 3.0만명, 7일 이동평균)
  - \* BOE는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2021.2분기 GDP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각각 5.5%(+1.0%p), 3.0%(+0.5%)로 상향 조정하였으나,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기준금리와 연간 자산매입 목표액(8,950억파운드)은 기존 수준을 유지

■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 소폭 상승 전망: : 7월말 0.02% → 8월말 0.03% → 9월말 0.04%

- 재정지출 확대에도 코로나 재확산, 일본은행(BOJ)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국채금리 변동폭이 크게 제한
  - \* 신규 코로나 확진자수(7일 이동평균, 명): 6.30일 1,501 → 7.29일 5,682
  - \* 7.5일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코로나 충격을 면밀히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통화 완화정책을 실시할 의사가 있음을 재차 언급
  - \* 7.16일 BOJ는 통화정책회의에서 수익률곡선관리(YCC) 정책을 유지하고, 2021 회계연도(2021.4월~2022.3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p(4.0%→3.8%) 하향 조정

해외금리 전망

항목	단위	2020	2021(F)	2021.6월	7월	8월(F)	9월(F)
미국 기준금리	기말, %	0.25	0.25	0.25	0.25	0.25	0.25
미국 국채 10년물	기말, %	0.91	1.70	1.47	1.22	1.26	1.30
독일 국채 10년물	기말, %	-0.57	-0.20	-0.21	-0.46	-0.41	-0.36
영국 국채 10년물	기말, %	0.20	0.80	0.72	0.57	0.60	0.63
일본 국채 10년물	기말, %	0.03	0.05	0.06	0.02	0.03	0.04

주: 2021년말 전망치는 '우리금융그룹 거시경제·금융시장지표 전망'(2021.7.23일) 기준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7월 미 국채금리 전망에 대한 평가(C등급<sup>2)</sup>)

- 7월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1.22%로 전망치(1.48%)를 크게 하회
- 경기 고점 우려와 글로벌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의한 안전자산 수요로 미 국채 금리가 예상과 다르게 하락

2) 대표 금리지표(국고채 3년)의 실제치와 전망치 간 격차가 ±1bp 이하는 S등급, ±3bp 이하는 A등급, ±5bp 이하는 B등급, ±5bp 초과는 C등급으로 평가

## 2. 환율

### ■ 원/달러 환율 소폭 하락(원화 강세) 전망: 7월말 1,150 → 8월말 1,145 → 9월말 1,140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8월 예측)에 따른 미국과의 금리차 확대, 수출 호조와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를 통한 코로나 확산세 억제 가능성으로 원화는 강세압력이 다소 우세
  - \* 통관수출(전년동월대비, %): 4월 41.2 → 5월 45.6 → 6월 39.8 → 7월 29.6
  - \* 무역수지 흑자(억달러): 4월 4.2 → 5월 29.4 → 6월 44.5 → 7월 17.6
  - \* 달러 인덱스(기말): 4월 91.3 → 5월 89.8 → 6월 92.4 → 7월 92.2

### ■ 위안/달러 환율 소폭 하락(위안화 강세) 전망: 7월말 6.46 → 8월말 6.44 → 9월말 6.42

- 경기모멘텀 둔화 우려와 중국 교육·기술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인민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지속, 외국인의 채권 투자 자금 유입으로 소폭 강세 전망
  - \* 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4월 9.8 → 5월 8.8 → 6월 8.3
  - \*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 4월 17.7 → 5월 12.4 → 6월 12.1
  - \* 7.7일 상무회의에서 인민은행 부행장은 정책수단의 적시 조정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위안화 환율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
  - \* 인민은행은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기업부담이 확대된 상황에서 실물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7.15일부터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50bp 인하

### ■ 엔/달러 환율 소폭 상승(엔화 약세) 전망: 7월말 109.7 → 8월말 110.0 → 9월말 110.3

- 올림픽 이후 일본내 코로나 재유행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일 국채 금리차가 다시 확대될 것으로 보여 엔화는 소폭 약세
  - \* 미국-일본 금리 스프레드(10년물 국채, bp): 2020.2.12일 168 → 8.4일 49(단기 저점) → 2021.3.31일 165(13개월래 최대) → 7.30일 120
  - \* 7.30일 일본 정부는 도쿄도·오키나와현의 긴급사태 발령 기한을 8.22일에서 8월말로 연장하고, 발령 지역도 수도권 3개현·오사카부로 확대

### ■ 달러/유로 환율 소폭 상승(유로화 강세) 전망: 7월말 1.187 → 8월말 1.190

→ 9월말 1.195

- 역내 코로나 재유행 우려와 ECB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높은 백신접종률과 EU 경제회복기금 집행에 의한 유로지역 서비스업 경기 정상화 기대로 유로화는 다소 강세
  - \* 유로지역 서비스업PMI(기준선=50): 5월 55.2 → 6월 58.3 → 7월 60.4
  - \* 7.28일 현재 EU의 백신접종률(1회)은 58.3%로 미국(56.7%)을 상회. 역내 델타 변이 확산으로 실내시설 이용시 백신여권을 제시하는 등 접종 의무화를 강화

주요국 환율 전망

항목	단위	2020	2021(F)	2021.6월	7월	8월(F)	9월(F)
원/달러	기말, 원	1,086	1,130	1,126	1,150	1,145	1,140
위안/달러	기말, 위안	6.53	6.45	6.46	6.46	6.44	6.42
엔/달러	기말, 엔	103.3	111.0	111.1	109.7	110.0	110.3
달러/유로	기말, 달러	1.222	1.190	1.186	1.187	1.190	1.195

주: 2021년말 전망치는 '우리금융그룹 거시경제·금융시장지표 전망'(2021.7.23일) 기준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7월 원/달러 환율 전망에 대한 평가(A등급)<sup>3)</sup>

- 7월말 원/달러 환율은 1,150원으로 전망치(1,123원)를 소폭 상회
- 전세계 델타 변이 확산, 국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 위안화 절하로 원화는 예상과 달리 약세

3. 주가지수

■ KOSPI 상승 전망: 7월말 3,202 → 8월말 3,255 → 9월말 3,280

- 밸류에이션 부담과 국내외 통화긴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글로벌 경기 개선, 확장적 재정정책,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업종의 실적 개선, 풍부한 시중 유동성에 힘입어 KOSPI 지수에 상승압력이 우세
  - \* 12개월 선행 PER(기말, 배, Bloomberg): 5월 11.7 → 6월 12.0 → 7월 11.4
  - \* 정부는 7.2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를 확대(소득 하위 80% → 88%, 33조원 → 34조9천억원)한 2차 추경안을 의결

3) 대표 환율지표(원/달러)의 실제치와 전망치 간 격차가 ±1% 이하는 S등급, ±3% 이하는 A등급, ±5% 이하는 B등급, ±5% 초과는 C등급으로 평가

\* 7월 중 주체별 코스피 순매수(조원): 개인 +7.9 외국인 -5.1, 기관 -2.8

■ **은행주 상승 전망: 7월말 1,891 → 8월말 1,910 → 9월 말 1,930**

- 국내 은행주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재연장 등 정책 요인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 상승과 경기회복에 의한 NIM 개선, 양호한 자산건전성 유지, 배당 관련 규제 완화 등으로 상승흐름을 예상
  - 8.5일 카카오뱅크 상장 이후 은행주에 대한 수급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

■ **그린스탁지수(WGSI<sup>4</sup>) 상승 전망: 7월말 1,952 → 8월말 1,975 → 9월말 1,990**

- 국내 그린주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시장 진입 가속화, 국내 완성차와 배터리 기업간 협업 강화에 따른 2차전지, 전기차 섹터 강세, 풍력 기업들의 해외투자 확대로 KOSPI를 상회하는 양호한 주가 흐름을 예상
  - \* 메르세데스그룹은 2025년 이후 100% 전기차 생산전환과 2030년까지 400억 유로(약 54.2조원) 투자 계획을,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는 인도네시아(배터리 핵심소재 보유)에 연산 10GWh 규모의 배터리셀 합작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
  - \* 씨에스윈드(풍력)는 포르투갈 풍력타워 생산기업(ASMI)의 지분(60%)을 인수하고, 600억원대 대만 납품계약을 수주

■ **KOSDAQ 상승 전망: 7월말 1,031 → 8월말 1,050 → 9월말 1,055**

- 밸류에이션 부담, 국내외 통화긴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거시경제 여건, 기업실적 개선, 한국형 뉴딜정책 관련 산업 수혜, 주요 벤처기업 IPO 추진 등으로 KOSDAQ 지수가 상승
  - \* 7월 중 주체별 코스닥 순매수(조원): 개인 +1.2, 외국인 +0.2, 기관 -1.4

■ **S&P500 상승 전망: 7월말 4,395 → 8월말 4,410 → 8월말 4,430**

- 지수 고평가 부담, 증세 추진, 연준 테이퍼링 우려,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세, 미·중 갈등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 가속화에 따른 경제활동 정상화, 기업실적 개선,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 S&P500 지수에 상승압력이 점증

4) 그린스탁지수(WGSI, WFRI Green Stock Index):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43개 클린 에너지 펀드에 담긴 641개 종목 중 그린 비즈니스(전기차·부품, 수소, 태양광, 2차전지, 풍력, 에너지효율, 리사이클링, 기타 신재생에너지) 연관 매출액이 10% 이상인 92개 종목을 시가총액('20.1월=1,000)을 가중평균하여 산출



\* 7.14일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계획(1.2조 달러 American Job Plan, 1.8조 달러 American Families Plan)을 포함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향후 10년간 3조5천억달러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하기로 협의

### 국내외 주가 전망

항목	단위	2020	2021(F)	2021.6월	7월	8월(F)	9월(F)
KOSPI	기말	2,873	3,360	3,297	3,202	3,255	3,280
은행업 주가지수	기말	1,557	-	1,992	1,891	1,910	1,930
WCSI	기말	1,772	-	1,978	1,952	1,975	1,990
KOSDAQ	기말	968	1,050	1,030	1,031	1,050	1,055
S&P 500	기말	3,756	4,340	4,298	4,395	4,410	4,430

주: 2021년말 전망치는 '우리금융그룹 거시경제·금융시장지표 전망'(2021.7.23일) 기준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 7월 KOSPI 전망에 대한 평가(B등급)<sup>5)</sup>

- 7월말 KOSPI는 3,202으로 전망치(3,320)를 하회
- 글로벌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 확대로 KOSPI 지수가 예상과 달리 약세

#### ※ 7월 은행업 주가지수 전망에 대한 평가(C등급)

- 7월말 은행업 주가지수는 1,891로 전망치(1,995)를 크게 하회
- 델타 변이 확산, 국내외 장단기금리차 축소, 미국 대형은행 등 글로벌 금융주 부진, 카카오뱅크 상장에 따른 수급 우려로 은행주에 하방압력이 강화

#### ※ 7월 그린스탁지수 전망에 대한 평가(A등급)

- 7월말 WCSI는 1,952로 전망치(2,005)를 소폭 하회
-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한 태양광의 수익성 악화로 그린스탁지수가 약세

5) KOSPI, 은행업 주가지수의 실제치와 전망치 간 격차가 ±1% 이하는 S등급, ±3% 이하는 A등급, ±5% 이하는 B등급, ±5% 초과는 C등급으로 평가

**붙임1**

**7월중 국내금리 동향**

■ 한국은행은 7.15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0.50%)에서 동결

\* 이주열 총재는 국내 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의 불확실성이 잠재하고 있어 당분간 완화적인 통화정책기조를 이어나가갈 것이라고 언급. 다만, 고승범 위원이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제기한 가운데 향후 경기와 물가, 금융불균형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월말 대비 3bp 하락(6월말 1.45% → 7월말 1.42%)

- 7.15일 매파적인 금통위 결과를 반영하여 1.50%까지 급등하였으나, 7.21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로 1.38%까지 하락
  - \*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7.21일 1,784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

■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전월말 대비 22bp 하락(2.09% → 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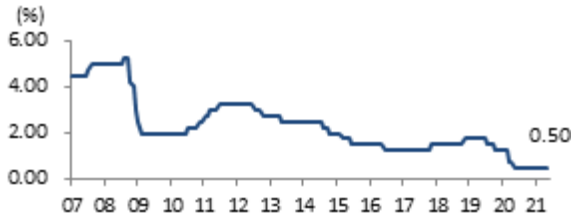
- 7.6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수가 연초 이래 처음으로 1,000명을 돌파하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증가하며 미국 국채 10년 금리가 급락함에 따라 7.6일 2.12%에서 7.7일 2.04%로 0.8%p 하락
- 7.21일 국내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코로나 장기화 가능성으로 지난 2.24일(1.85%) 이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인 1.88%까지 하락했으며, 7.26일에는 1.86%까지 추가 하락한 후 7.30일 1.87%로 마감

**국내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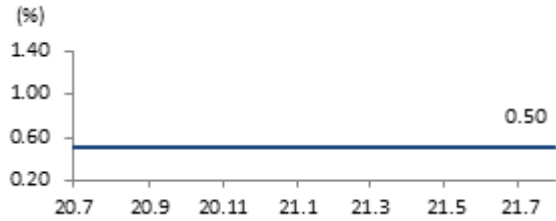
	단위	연간			분기				월간				
		2018	2019	2020	20.2/4	3/4	4/4	21.1/4	21.4월	5월	6월	7월	
금리	기준금리(기말)	%	1.75	1.25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국고채(3년, 기말)	%	1.817	1.360	0.976	0.846	0.976	1.133	1.448	1.141	1.227	1.448	1.417
	국고채(10년, 기말)	%	1.948	1.683	1.713	1.430	1.713	2.057	2.092	2.128	2.179	2.092	1.874
스프레드	국고3년-기준금리	bp	7	11	48	35	48	63	95	64	73	95	92
	국고채10년-3년	bp	13	32	74	58	74	92	64	99	95	64	46
	한국-미국(10년)	bp	-74	-23	80	75	80	32	62	50	58	62	65
	한국-독일(10년)	bp	171	187	228	195	228	235	230	233	237	230	234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한은 기준금리(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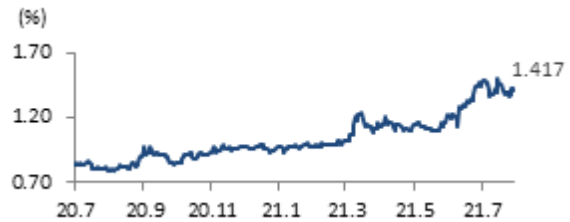
한은 기준금리(일간)



국고채 3년물(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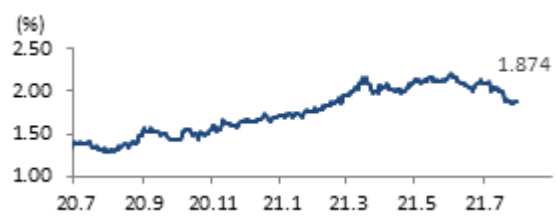
국고채 3년물(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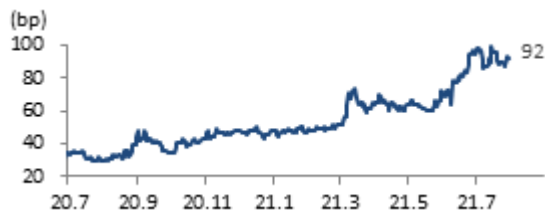
국고채 10년물(월간)



국고채 10년물(일간)



국고채 3년·기준금리차(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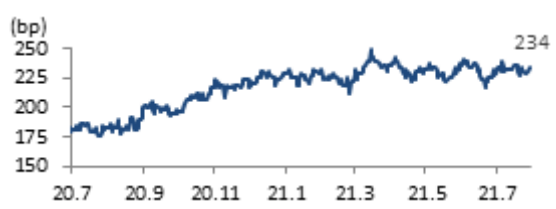
장단기 금리차(국고채 10년-3년, 일간)



한국·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차(일간)



한국·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차(일간)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붙임2 | 7월중 해외금리 동향

### ■ 미 연준은 7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0.25% 상한)에서 동결

- 고용시장이 연준 목표 수준만큼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고, 인플레이션이 예상 보다는 높지만 일시적이라고 평가하면서 기준금리와 자산매입 속도를 현 수준에서 유지
  - \* 연준은 7월(27~28일) FOMC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경제상황이 자산매입 축소를 위한 양대 목표를 향해 진전되었다고 평가

### ■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월말 대비 25bp 하락(6월말 1.47% → 7월말 1.22%)

- 경기 모멘텀 둔화(peak-out), 글로벌 코로나 재확산, 미국 백신 접종률 정체, 물가지표 급등이 일시적이라는 평가에 7.19일 1.19%까지 급락했으나, 낙폭 과대 인식과 미국 기업실적 호조에 의한 위험선호심리 회복에 소폭 반등
  - \* 서비스업 PMI(기준선=50): 4월 64.7 → 5월 70.4 → 6월 64.6 → 7월 59.8

### ■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25bp 하락(-0.21% → -0.46%)

- 델타 변이에 의한 코로나 재확산, 유럽 서비스업 경기회복 지연 우려, ECB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 유지로 하락
  - \* ECB 라가르드 총재는 7.22일 통화정책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관광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약화될 수 있다고 발언

### ■ 영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15bp 하락(0.72% → 0.57%)

- 물가지표 상승, 높은 백신 접종률에 기반한 봉쇄조치 전면해제(7.19일)에도 코로나 재유행에 따른 글로벌 금리 하향 안정화에 연동하여 낮아짐
  -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비, %): 4월 1.7 → 5월 2.2 → 6월 2.4

### ■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4bp 하락(0.06% → 0.02%)

- BOJ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지속, 미 국채금리와의 동조화로 7.20일 0.01% (2020.5월 이후 최저치)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소폭 반등
  - \* BOJ는 7.16일 통화정책회의에서 수익률곡선관리(YCC) 정책을 유지하고, 2021 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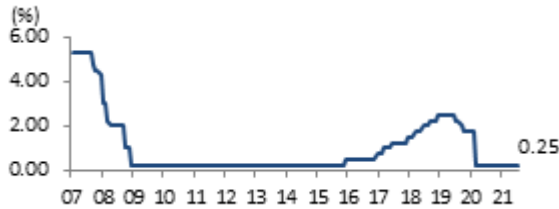
연도(2021.4월~2022.3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p(4.0%→3.8%) 하향 조정

해외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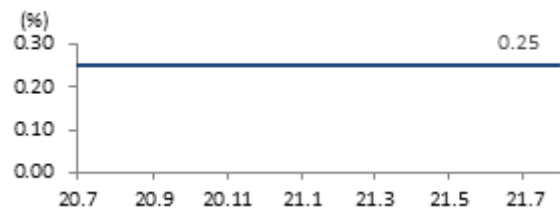
	단위	연간			분기				월간				
		2018	2019	2020	20.3/4	4/4	21.1/4	2/4	21.4월	5월	6월	7월	
미국	기준금리(기말)	%	2.50	1.7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국채(10년, 기말)	%	2.684	1.918	0.913	0.684	0.913	1.740	1.468	1.626	1.594	1.468	1.222
독일	기준금리(기말)	%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국채(10년, 기말)	%	0.242	-0.185	-0.569	-0.522	-0.569	-0.292	-0.207	-0.202	-0.187	-0.207	-0.461
영국	기준금리(기말)	%	0.75	0.75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국채(10년, 기말)	%	1.277	0.822	0.197	0.229	0.197	0.845	0.716	0.842	0.795	0.716	0.565
일본	기준금리(기말)	%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국채(10년, 기말)	%	-0.003	-0.028	0.026	0.026	0.026	0.093	0.059	0.090	0.080	0.059	0.018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준 기준금리(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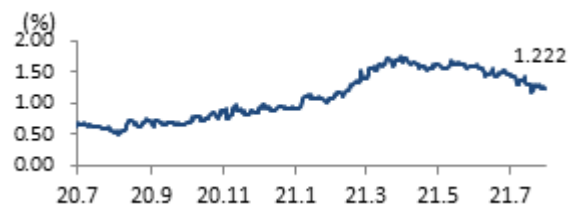
연준 기준금리(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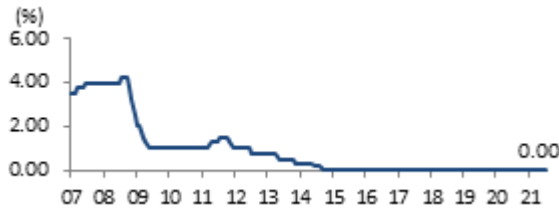
미국 국채 10년물(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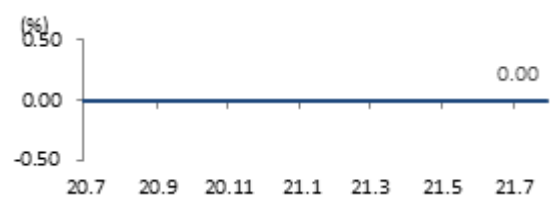
미국 국채 10년물(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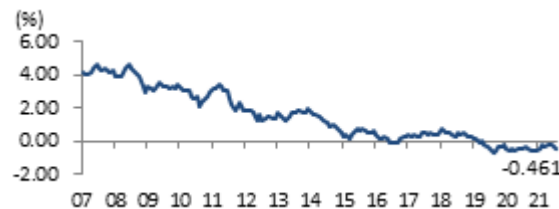
ECB 기준금리(월간)



ECB 기준금리(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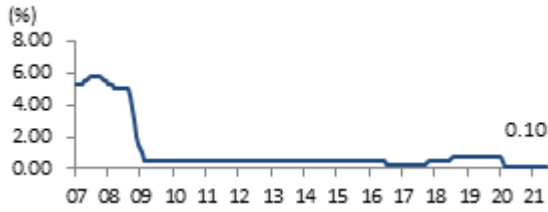
독일 국채 10년물(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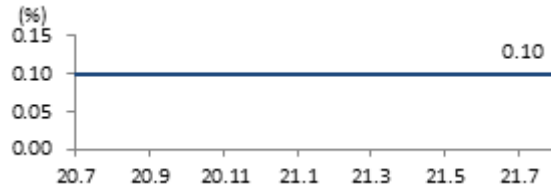
독일 국채 10년물(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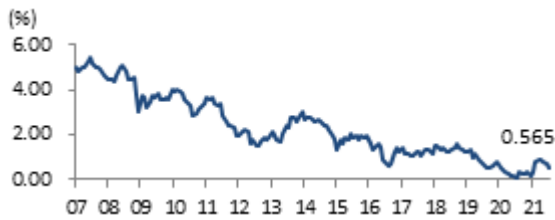
BOE 기준금리(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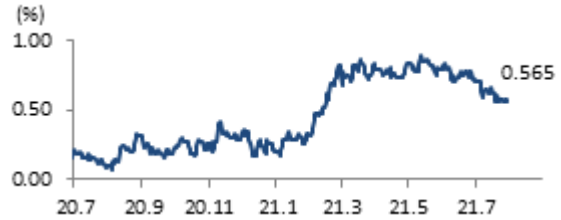
BOE 기준금리(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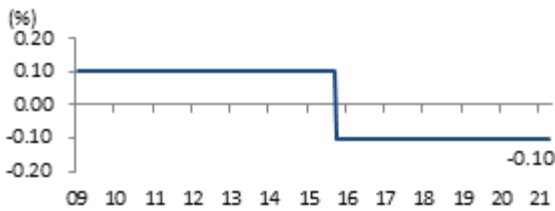
영국 국채 10년물(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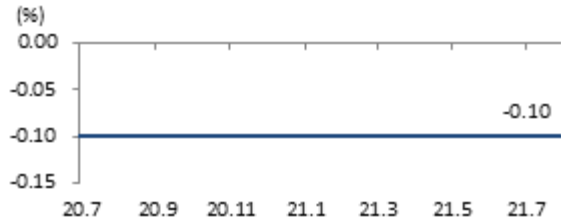
영국 국채 10년물(일간)



BOJ 기준금리(월간)



BOJ 기준금리(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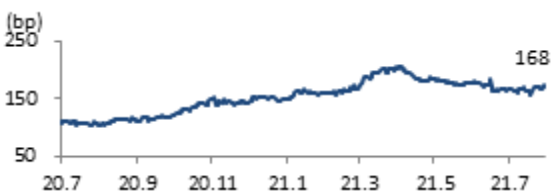
일본 국채 10년물(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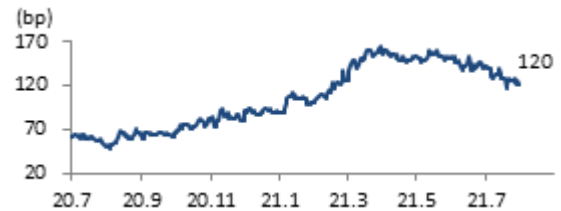
일본 국채 10년물(일간)



미국·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차(일간)



미국·일본 국채 10년물 금리차(일간)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붙임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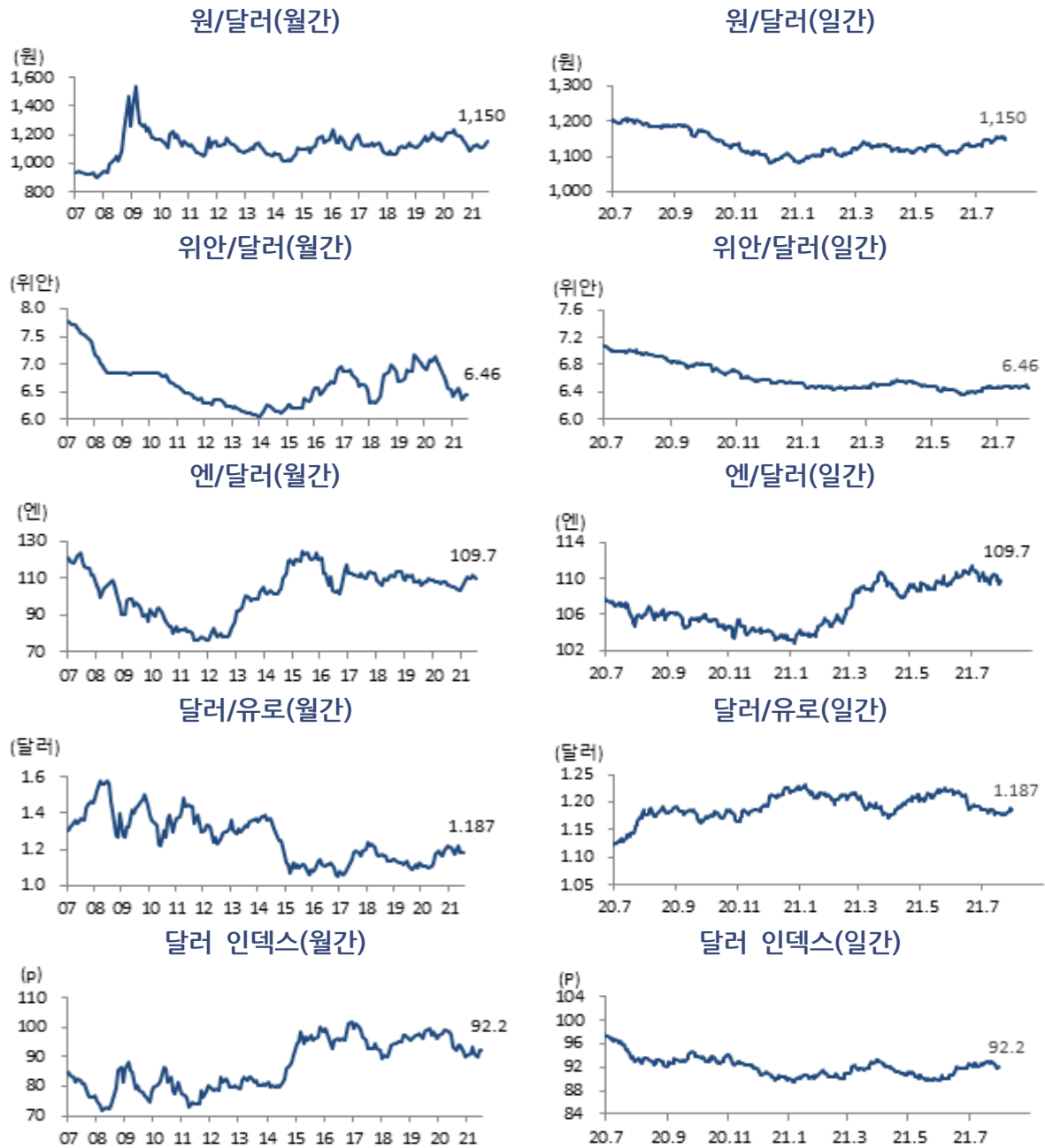
**7월중 환율 동향**

- **원/달러 환율은 전월말대비 2.1% 상승(원화 약세, 6월말 1,126 → 7월말 1,150)**
  -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위험회피심리 강화, 국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연장에 의한 내수회복세 둔화 가능성, 중국 증시 조정에 의한 위안화 약세를 반영하여 상승
- **위안/달러 환율은 미미하게 상승(위안화 약보합, 6.457 → 6.461)**
  - 외국인인 채권 수요가 지속되었으나, 중국 경기 모멘텀 둔화, 미·중 긴장 고조, 중국 당국의 규제 리스크를 반영하여 위안화 가치는 약보합 마감
    - \* 중국 2분기 GDP는 전년대비 7.9% 증가하여 기저효과가 컸던 1분기(18.3%) 대비 하락했고, 산업생산(5월 8.8% → 6월 8.3%)과 소매판매(5월 12.4% → 6월 12.1%)도 증가폭이 다소 둔화
    - \* 정부는 7.23일 사교육 기업 영리화와 IPO를 통한 자금조달 금지를 골자로 한 규제를 발표했고, 플랫폼·부동산 기업까지 규제 리스크가 확대되며 중국 증시가 급락
- **엔/달러 환율은 1.3% 하락(엔화 강세, 111.1 → 109.7)**
  - 델타 변이에 따른 글로벌 안전자산 수요, 미·일 금리차 축소로 7.19일 109.5까지 하락
    - \* 미국-일본 10년물 국채 금리차(bp): 6.30일 141 → 7.19일 117 → 7.30일 120
- **달러/유로 환율은 0.1% 상승(유로화 강보합세, 1.186 → 1.187)**
  - 유럽내 코로나 재유행 우려, ECB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지속으로 7.22일 1.177까지 낮아졌으나, 백신 보급 가속화에 따른 견조한 유로존 2분기 GDP 성장률에 힘입어 반등
    - \* ECB는 7.22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와 자산매입 규모·속도를 유지하고, 새 인플레이션 목표치(대칭적 2%)에 도달할 때까지 일시적인 오버슈팅은 용인하면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는 수정 포워드가이던스를 제시
    - \* 유로존 2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은 2.0%로 1분기 -0.3%에서 증가 전환
    - \* 7.28일 EU 집행위는 올해 여름까지 27개 회원국 성인 인구의 70% 이상에 대한 백신 접종 완료 계획을 달성했다고 밝힘

주요 환율

	단위			연간				분기			
	2018	2019	2020	20.3/4	4/4	21.1/4	2/4	21.4월	5월	6월	7월
원/달러(기말)	1,116	1,156	1,086	1,170	1,086	1,132	1,126	1,112	1,111	1,126	1,150
위안/달러(기말)	6.88	6.96	6.53	6.79	6.53	6.55	6.46	6.47	6.37	6.46	6.46
엔/달러(기말)	109.7	108.6	103.3	105.5	103.3	110.7	111.1	109.3	109.6	111.1	109.7
달러/유로(기말)	1.147	1.121	1.222	1.172	1.222	1.173	1.186	1.202	1.223	1.186	1.187
달러지수(기말)	96.2	96.4	89.9	93.9	89.9	93.2	92.4	91.3	89.8	92.4	92.2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붙임4 | 7월중 주가지수 동향

### ■ KOSPI 지수는 전월말 대비 2.9% 하락(6월말 3,297 → 7월말 3,202)

- 거리두기 단계 상향조정 발표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과 아시아증시 약세로 급락(7.9일 3,218)한 이후 외국인 및 기관의 순매수와 함께 소폭 반등(7.15일 3,286)하였으나,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 따라 7.30일 3,202로 하락 마감
  - \* 7월 중 주체별 코스피 순매수(조원): 개인 +7.9, 외국인 -5.1, 기관 -2.8
- 국내 은행주는 5.0% 급락(코스피 대비 2.2%p 약세)
  - 예상보다 양호한 2분기 금융지주 실적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 확산으로 경기 회복 기대감이 낮아지고 시중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KB금융(-8.1%), 하나금융(-5.6%), 우리금융(-5.2%), 신한금융(-3.6%)이 모두 약세
  - 카카오뱅크의 IPO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기존 은행주에 대한 수급 우려가 증가
    - \* 7월 중 외국인 순매수(억원): 우리 +1,485, 하나 -789, 신한 -902, KB -3,514
- 글로벌 Top 50 은행주는 2.2% 낮아짐(아시아 Top10 은행주도 4.7% 하락)
- 국내 그린주(WGSI)는 1.3% 하락(코스피 대비 1.6%p 강세)
  - 2차전지(+3.7%)의 경우 시총비중이 높은 2개 종목(에코프로비엠,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8월 MSCI지수 신규 편입 가능성 발표로, 풍력(+3.6%)은 2분기 실적 호전 예상과 풍량이 늘어나는 계절적 성수기 진입 확대로 주가가 상승한 반면, 에너지효율(-10.9%), 전기차(-8.0%), 태양광(-6.0%), 전기차부품(-5.6%), 수소(-1.9%), 리사이클링(-0.7%) 업종은 하락

### ■ KOSDAQ 지수는 0.1% 상승(1,030 → 1,031)

- 장기금리 하락으로 성장주가 강세를 보이고, 게임·제약 산업 중심으로 반등
  - \* 7월 중 주체별 코스닥 순매수(조원): 개인 +1.2, 외국인 +0.2, 기관 -1.4

### ■ 선진국(MSCI DM) 증시는 1.7% 상승했으나, 신흥국(MSCI EM) 증시는 7.0% 하락

- 미국(+2.3%), 유럽(+0.6) 증시가 상승, 일본(-5.2%), 중국(-5.4%)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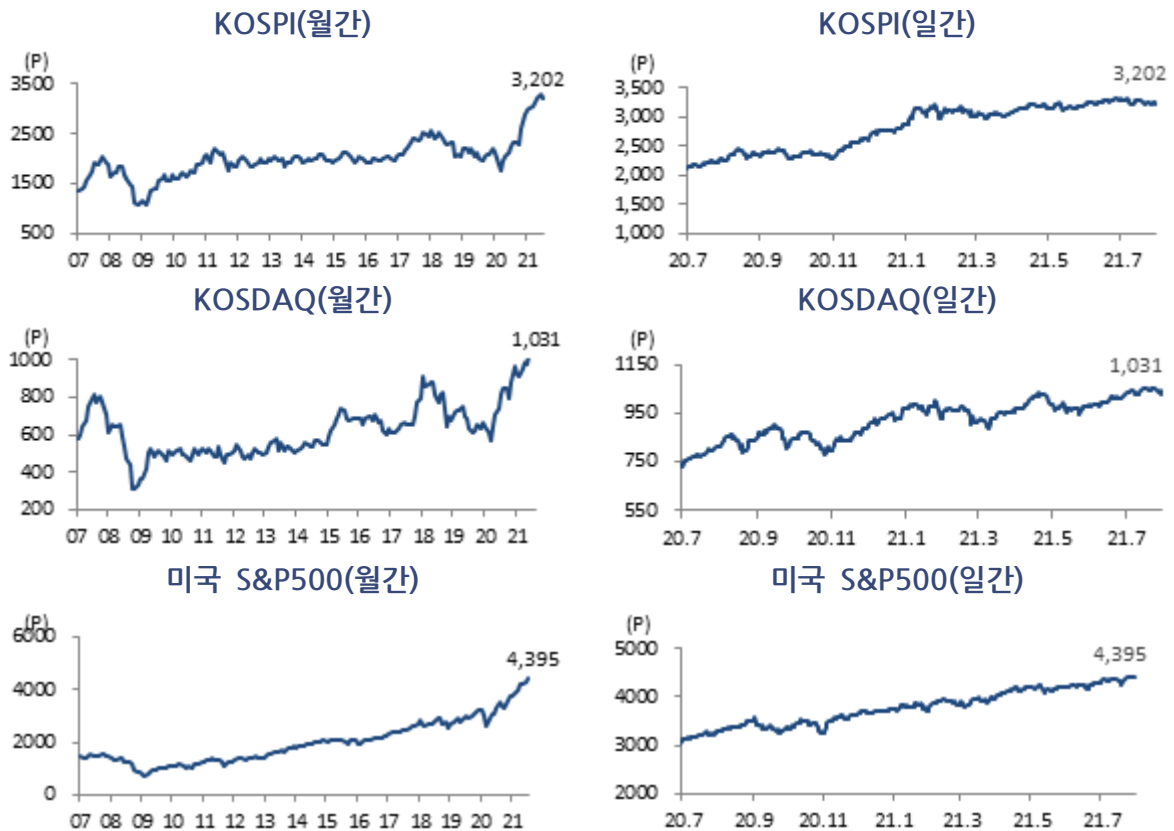
### ■ S&P500 지수는 2.3% 상승(4,298 → 4,395)

- 델타 변이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글로벌 경제 회복에 대한 우려로 급락(7.19일 4,258)했으나,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실적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7.26일 4,422)

주요 주가

		연간			분기				월간			
		2018	2019	2020	20.3/4	4/4	21.1/4	2/4	21.4월	5월	6월	7월
국내 증시	KOSPI	2,041	2,198	2,873	2,328	2,873	3,061	3,297	3,148	3,204	3,297	3,202
	KOSDAQ	676	670	968	848	968	956	1,030	983	982	1,030	1,031
해외 증시	(선진국)MSCI DM	1,884	2,358	2,690	2,367	2,690	2,812	3,017	2,939	2,976	3,017	3,069
	(신흥국)MSCI EM	966	1,115	1,291	1,082	1,291	1,316	1,375	1,348	1,376	1,375	1,278
	(미국)S&P500	2,507	3,231	3,756	3,363	3,756	3,973	4,298	4,181	4,204	4,298	4,395
	(일본)Nikkei225	20,015	23,657	27,444	23,185	27,444	29,179	28,792	28,813	28,860	28,792	27,284
	(유럽)Eurostoxx50	3,001	3,745	3,553	3,194	3,553	3,919	4,064	3,975	4,039	4,064	4,089
은행주	(중국)상해종합지수	2,494	3,050	3,473	3,218	3,473	3,442	3,591	3,447	3,615	3,591	3,397
	우리금융	n.a.	11,600	9,730	8,580	9,730	10,100	11,450	10,700	11,150	11,450	10,850
	KB금융	46,500	47,650	43,400	37,550	43,400	56,200	55,800	54,700	58,800	55,800	51,300
	신한금융	39,600	43,350	32,050	27,600	32,050	37,450	40,600	40,000	42,450	40,600	39,150
그린주	하나금융	36,250	36,900	34,500	28,100	34,500	42,800	46,050	45,650	46,550	46,050	43,450
	WGSJ	980	1,015	1,772	1,405	1,772	1,938	1,978	1,988	1,853	1,978	1,952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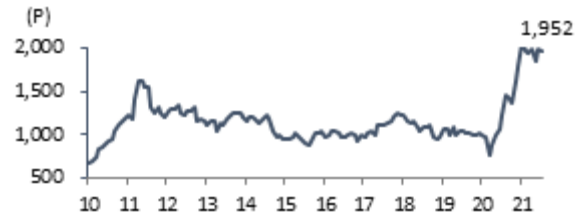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은행업 주가지수(월간)



그린스탁지수(WGSI, 월간)



자료: Bloomberg

\* 동 보고서는 연구원들이 신뢰할만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배포되는 조사분석 자료입니다. 동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시황에 대한 예측 또는 금융시장지표 전망 등)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 시에는 개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